

#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4월 20일 김관수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4. 23)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의원)

### □ 주 문

-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 제안이유

- 부천시를 통과하는 계획노선인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부천시민들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부천시의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 동 고속도로가 우리시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상동신도시 중심을 단절시키는 서울외곽순화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 하고 있어 생활권 단절과 녹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공간 훼손으로 인한 쾌적성 상실,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시민들의 고통과 쾌적한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됨은 물론, 89만 부천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부천 정수장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된다.

-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의 건설을 적극 반대하며 고속도로 노선 및 동부천 IC를 서울시계구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89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 따로붙임 : 결의문안

### 3.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당초 계획으로는 현위치에 동부천IC가 없던걸로 알고 있는데 ?		○ 당초에는 서울 서부터미널 지역 주변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변경되어 현위치로 옮기게 되었음.	
○ 동부천IC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물론 우리시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IC의 위치 변경을 어디로 요구하는지 ?		○ 당초 계획대로 서울시계구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반대 결의안

부천시는 도시형 밀집도시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고강동 지역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음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소음 등 환경피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총 연장 19.76km, 1조815억에 달하는 민자사업으로서 이중 부천시 통과구간은 7.85km이며 부천시를 통과하는 계획노선은 서울 외곽순화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 함에 따라 생활권 단절로 인한 부천시민의 피해가 막증하다 할 것이다.

또한 동부천IC 위치는 김포공항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인한 이주민들이 작동전원단지에 500여 세대가 정착한 곳으로 IC 설치 시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이중고통을 유발함으로 작동 전원단지일원의 우리시 마지막 남은 녹지축에 IC 설치하는 이는 녹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며 우리의 식수인 부천시 정수장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 본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광명~서울고속도로 노선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속도로 노선 및 동부천 IC 계획을 철회하고 서울시 제구간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편익을 위한 IC가 필요하다면 서울 신정동지역 구 서부터미널 주변 지역에 IC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 따른 변경 없이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89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부천시민의 대변자인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89만 시민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 광명 ~ 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제591호
의결 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발의년월일 : 2010. 4. 12.

발 의 자 : 김관수의원 등 8명

## 1. 주 문

「광명 ~ 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부천시를 통과하는 계획노선인 「광명 ~ 서울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부천시민들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부천시의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 동 고속도로가 우리시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상동신도시 중심을 단절시키는 서울외곽순화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 하고 있어 생활권 단절과 녹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공간 훼손으로 인한 쾌적성 상실,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시민들의 고통과 쾌적한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됨은 물론, 89만 부천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부천 정수장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된다.
-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 ~ 서울고속도로의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의 건설을 적극 반대하며 고속도로 노선 및 동부천 IC를 서울시계구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89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 따로붙임 : 결의문안

##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반대 결의안

부천시는 도시형 밀집도시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고강동 지역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음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소음 등 환경피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총 연장 19.76km, 1조815억에 달하는 민자사업으로서 이중 부천시 통과구간은 7.85km이며 부천시를 통과하는 계획노선은 서울 외곽순화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 함에 따라 생활권 단절로 인한 부천시민의 피해가 막증하다 할 것이다.

또한 동부천IC 위치는 김포공항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인한 이주민들이 작동전원단지에 500여 세대가 정착한 곳으로 IC 설치 시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이중고통을 유발함으로 작동 전원단지일원의 우리시 마지막 남은 녹지축에 IC 설치하는 이는 녹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며 우리의 식수인 부천시 정수장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 본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광명~서울고속도로 노선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속도로 노선 및 동부천 IC 계획을 철회하고 서울시 제구간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편익을 위한 IC가 필요하다면 서울 신정동지역 구 서부터미널 주변 지역에 IC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 따른 변경 없이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89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부천시민의 대변자인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89만 시민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0년 4월 26 일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